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잠언 10:12) Ted Hil
debrandt와
Chatgpt의 속담 이야기**

햇볕이 내리쬐는 작은 마을 한가운데서 두 가문은 대대로 불화를 빚어 왔습니다. 아무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염소 싸움, 부서진 울타리, 어쩌면 우연히 엇듣고 잘못 기억한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게일 가문과 모란 가문은 의심과 복수의 쓰라린 춤사위를 추며 살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는 두 가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울타리는 잘리고, 농작물은 짓밟혔으며, 마을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과 거친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이 조용한 전쟁의 한가운데, 젊은 엘리 게일과 미라 모란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모란을 믿지 마라"라는 경고를 받으며 자랐다. 엘리의 아버지는 "게일의 미소 속에는 단검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했고, 미라의 어머니는 "게일의 미소 속에는 단검이 숨겨져 있다"라고 야유했다. 하지만 세월의 원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삶은 그들을 끊임없이 끌어안았다. 시장에서, 강가에서, 끝없이 펼쳐진 하늘 아래에서. 처음에는 어른들에게 물려받은 모욕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노려보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날카로운 말투는 누그러졌다. 장난꾸러기 염소를 보며 함께 웃었던 기억, 넘어졌을 때 내민 손길.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다. 마치 굳은 흙 속에서 싹을 틔우는 봄꽃처럼, 부드럽고도 완고한 무언가가.

어느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오후, 늙은 모란 씨의 헛간에 불이 붙자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분명 게일 탓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엘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겁에 질린 동물들을 우리에서 끌어내고, 물을 가져오게 하고, 재킷으로 불길을 쳤다. 미라도 겁에 질렸지만 그와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불길과 싸웠고, 결국 새까맣게 탄 뼈대 아래 쓰러져 기침과 그을음을 겪으며 쓰러졌다.

마을은 들끓었다. 그날 밤 엘리의 아버지는 모란족을 도와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분노하며 소리쳤다. 미라의 어머니는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게일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여전히 증오의 불길은 여전히 타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바뀌었다. 소문이 퍼져 나갔다. 엘리 게일이 모란의 가축을 구할 수 있다면, 미라 모란이 게일 곁에서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어쩌면 그 불화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게일 가문의 젊은이들이 오랜 증오심에 불타 강가에서 엘리를 맞섰습니다. 그들은 엘리를 배신자, 비겁자라고 비난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엘리가 싸우기를 거부하자, 그들은 엘리를 때려 멍들고 갈대밭에 버려 두었습니다.

미라는 그곳에서 그를 발견했다. 상처를 씻어주며 그녀는 흐느꼈다. 그의 얼굴에 묻은 피와 그녀의 눈물이 뒤섞였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 그가 속삭였다. "난 그들을 동정할 뿐이야. 그들은 분노의 포로들이야."

시간이 걸렸다. 계절이 바뀌고, 수확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시간이 걸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부정할 수 없었다. 엘리와 미라의 사랑은 마치 느리고 완고한 나무처럼 자라나, 한때 척박했던 땅에 뿌리를 깊이 박았다. 그들의 친절은 옛 관습에 대한 조용한 반항처럼 퍼져 나갔다. 서서히 원한은 건넸다. 어색하고 어색한 사과가 오가기 시작했다.

증오가 끝없는 분쟁을 일으켰던 곳에서 사랑, 인내심 있고 끈기 있는 사랑은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고대 속담에서 말했듯이 마을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증오는 분쟁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잘못을 덮어줍니다(잠언 10:12)"